

하나님-사람의 생활

11/20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벧전 2:21-25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22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함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빌립보서 1 장 21 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선포한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4 장

20 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때 바울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라. 다음 절에서도 그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일 뿐 아니라 본이시다(요 13:15, 벧전 2:21).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에 따라 그분을 배우는 것이다(마 11:29). 신약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으로 오시지 않았다. …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는 동안 그분은 하나의 본, 틀, 모형을 세우셨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사복음서가 쓰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틀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은 네 가지 관점에서 기록된 유일한 전기(傳記)인 주 예수님의 전기를 제시한다. 주 예수님은 복음서들에 계시된 본을 세우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 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 장, 431-432 쪽)

오늘의 입을 말씀

신약에 따르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 장 30 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을 때 틀 안으로 넣으셨다. 자매들이 반죽을 틀 안에 넣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 형태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 장 29 절은 우리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틀에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아들은 틀이시고, 만아들의 많은 형제들은 이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이들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침례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 침례 받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6 장 3 절과 갈라디아서 3 장 27 절은 둘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에 관해 말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분 안으로 장사되는 것이다. 이 침례의 무덤이 본이요 틀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이 틀 안으로 넣어졌다. 이 틀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장사됨으로써 우리는 아담과 옛 창조물 밖으로 옮겨졌다. 침례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관해 말할 때 왜 과거 시제를 사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 안으로 장사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세우신 본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본을 세우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이자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음을 이미 지적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었다. 신약의 빛 비춤과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놓여지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웠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 장, 432-4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 49 장

11/21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마 11:29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빌 2:5-9, 12-13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에 따라 생활하기를 깊은 속에서 갈망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갈망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릇된 방식으로 이 갈망을 계발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단련하여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분을 본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 ... 예수님의 경건한 생활에는 진리 곧 실재가 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생활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의 의미이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분을 배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 장, 433-43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 이 틀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활, 곧 절대적으로 진리에 따른 생활이다. 진리는 빛의 비춤, 곧 빛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일 1:5),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활의 모든 방면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이 하나님의 표현이 빛의 비춤이고, 따라서 그것은 진리이다. 진리에 따른 예수님의 이 생활이 본이며, 하나님은 이 본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 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들에 나타난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주 예수님의 생활을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 생활은 빛의 비춤이고, 빛의 비춤은 진리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활 안에 진리가 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의 본질이 진리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의 본질이 진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은 결코 헛되게 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항상 진리, 즉 신성한 빛의 비춤 안에서 행하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 안에서 사시고 행하셨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이 실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 장, 434 쪽)

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일하시려고 곧 사역하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 그분께는 생활과 일에 구별이 없었다. 그분의 생활은 그분의 일이었으며, 그분의 일이 그분의 생활이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사셨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사역을 사셨다. 주님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생활을 하셨다. 그분께 있던 오직 한 가지는 그분의 생활이었고, 그 생활이 그분의 일이고 움직임이며 사역이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디에 가시든, 그것은 다 그분의 생활의 일부였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시며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동안, 그분은 가련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은 마가복음 1 장에 묘사되어 있다. 이어서 마가복음 2 장과 3 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죄들이 용서받게 하시고, 그분 자신과 함께 기쁨이 가득한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을 외적으로 덮는 그들의 의이시며, 그들을 내적으로 채우는 그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그분은 그들의 만족과 해방이 되셨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57 장, 491-4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2권, 장로 훈련, 2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4장;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56-57 장*

11/22 수요일

아침의 누림**레 1:3, 9**

3 만일 제물을 소 떼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9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벤전 1:18-19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롬 12:1-2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번제물은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기보다는 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온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레 1:9, 요 5:19, 30, 6:38,

7:18...)의 예표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고후 5:15, 갈 2:19-20)의 예표이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만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식이다(민 28:2). 번제물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바쳐야 했다(출 29:38-42, 레 6:8-13, 민 28:3-4).(레 1:3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번제물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번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인가?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활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생활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요 6:38).

번제물은 죽음을 당하고 가족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고 씻어진 후에 제단 위에서 태워졌다. ... 레위기 1 장 9 절에서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향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분께서 기꺼이 받으신다. '만족시키는 향기'라는 표현은 태워지는 희생 제물에서 발생하는 향기로운 연기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이다(S. R. Driver). 레위기 1 장 9 절에서 사용된 '태우다'('확대역 성경'에서는 '연기로 올라가게 하다'로 번역함)라는 단어는 번제물이 급하게 태워지지 않고 서서히 태워졌음을 가리킨다. 번제물이 이렇게 서서히 태워진 결과로 만족시키는 향기, 곧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향기가 있었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된다.

우리가 바친 번제물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러질 때,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그분의 만족과 안식을 위해 그분께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달콤하고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번제물의 의미이다.

번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뜻한다. 하나님을 달콤함과 화평과 안식으로 만족시켜 드리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성경에서 손을 얹는 것(안수)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시하는 것, 곧 연결하는 것을 상징한다. 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 우리가 제물과 하나이고 또한 제물이 우리와 하나임을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수하는 것은 두 대상을 하나로 만든다.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 위에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었다. 우리와 그분,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과 하나 된다. 그러한 연합, 그러한 동일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단점과 부족한 점과 결점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됨을 가리킨다. 이러한 연결, 곧 이러한 동일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과 흠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은 교환이 아니다. 이것은 연결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약간의 자격도 소망도 없음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실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우리의 약점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강점과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실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 그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활을 반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8 장, 93 쪽, 4 장, 59-60 쪽, 3 장, 45-4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5, 8-9 장

11/23 목요일

아침의 누림

시 20:3

3 그대의 모든 소제물을 기억하시며 그대의 번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네. 셀라

레 6:11

11 그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레 1:16

16 그는 그 제물의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떼 내어 제단 동쪽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한다.

고전 1:28-30

28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29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욘 42:5-6

5 내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6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재로 만드시는 것은 곧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다. ... 시편 20 편 3 절에서 ‘기쁘게 받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실지로 ‘재로 만들다’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대개 재를 유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번제물을 드리는 우리에게 재는 참으로 유쾌하고 심지어 보배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을 주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기쁘게 받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재로 만들다’로 번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름으로 받다’, ‘기름으로 만들다’, ‘기름이 되게 하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재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것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달콤한 기름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제물이 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많은 재가 있어야 함을 깨달을 것이다.

재는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재는 제단 동쪽, 곧 재 버리는 곳에 두어졌다(레 1:16, 6:10).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다. 재를 제단 동쪽에 두는 것은 사실상 부활을 암시한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6 장, 79-8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 6 장 11 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가 내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결과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레위기 6 장 11 절은 번제물의 재(결과)를 위엄 있게 다루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번제물의 결과는 높이 평가된다. 재는 곱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러므로 진영 밖으로 재를 옮길 때 제사장은 위엄 있는 옷을 입고 위엄 있게 재를 운반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번제물의 결과를 높이 평가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전시간 봉사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며 또한 틀림없이 결과가 있다. 우리는 이 결과를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것을 경시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번제물이 된 결과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시간 봉사자로서 하는 일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거나, 각지방에 교회를 세우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사람들을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곧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상 비범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를 높이

평가하신다. 결국 이 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번제물의 결과인 재가 장차 오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고 믿고 있다. 나는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성의 한 부분이 될 것임을 믿는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목적지이다.

번제물의 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가? 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가리키고, 그 결과는 우리를 종결하여 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온다. 부활 안에서 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귀한 재료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된다. 세 가지 귀한 재료는 모두 재가 변화되어 산출된다. 우리는 재가 되도록 이끌릴 때, 삼일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일 안으로 이끌린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6 장, 80 쪽, 23 장, 251-25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6-7, 23 장

11/24 금요일

아침의 누림

눅 6:12

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요 8:29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시 16:7-8

7 세계 조연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참으로 밤마다 저의 속부분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8 제가 항상 제 앞에 여호와를 모시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 50:4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유 20-21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온 일생 동안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셨다. 그분은 세상을 향해 어떤 소망을 갖지 않으셨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셨다. ... 그분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은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만족으로 삼으셨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이 세상의 사람과 일과 사물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이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워치만 니 전집, 17 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1), 21 기, 237-23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셨다. ... 그분께서 기도의 사람이신 것은,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단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빌 3:8, 12-14)와 같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서들에 계시된 기도의 사람의 순수한 본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매우 특별하며 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인 첫 번째 하나님-사람을 묘사할 때 '영적인'이라는 표현을 피했다. 그 대신에 나는 '신성한'과 '비밀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비밀하다는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한 면으로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신 한 사람이셨지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하나님께 기도드리셨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셨다(요 10:30).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닐 수 있다. 또한 그분은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는 사람이셨다(행 10:38 하, 요 8:29, 16:32). 그분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매 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얼굴을 주목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매우 친밀하고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는 않는다. 또한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베드로전서 2 장 23 절 하반절은

그분께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위협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23 장 46 절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마도 조금은 신뢰하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 장 30 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입지나 기회나 희망이나 가능성을 갖지 못했음을 뜻한다. 우리가 빛 비춤을 받는다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사탄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입지와 기회와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기도의 사람은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온성경 가운데 특별한 문장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 곧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그분 안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0 장, 132-133 쪽)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간음한 여인을 유죄판결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녀에게 “나도 그대를 유죄판결 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녀를 보살피셨다. 이것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그분께서 그녀를 보양하시어 죄에서 해방시켜 그녀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요 8:3-11, 24, 34-36).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위대하신 ‘나는 -이다’이신 분이로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10 장, 20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0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7-10 장

11/25 토요일아침의 누림**요일 4:16-17**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갈 6:2

2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고전 13:1, 4-8a

1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8a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 장 16 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사랑으로 다른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내용과 외적인 표현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인 생명을 삶으로써 절대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실지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어야 함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일서 4 장 17 절에서 요한은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 안에 거할 때(16 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즉 우리가 심판 날에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18 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35 장, 336-33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일서 3 장 3 절과 7 절에서처럼 4 장 17 절의 ‘그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일서 4 장 1 절에서처럼 4 장 17 절에 있는 ‘세상’은 우주나 땅을 가리키지 않고 땅에 있는 인간 사회, 곧 사탄적인 세상 체계의 구성원들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35 장, 337 쪽)

어떤 성경 해설가들은, 갈라디아서 6 장 2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명을 언급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진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을 통해 활동하는 더 높고 더 나은 생명의 법임을 보아야 한다(롬 8:2, 요 13:34).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사랑은 표현이지만 생명은 본질이다. 참사랑은 신성한 생명에서 나온다.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사랑은 신성한 생명의 표현이다. 더욱이 사랑이 그 영의 열매라는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 그 영임을 가리킨다(갈 5:22). 사실상 모든 영적인 미덕들에는 반드시 그 본질로서 신성한 생명과 그 영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은 반드시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 장 2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법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생명의 법은 사랑의 법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갈라디아서 6 장 3 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질 것이다.

체험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동적이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영께 이끌려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심지어 의식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29 장, 283-28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35 장;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29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3 장

11/26 주일

아침의 누림

엡 4:22-24, 29-32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31 여러분은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엡 5:1-2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장

찬송: 280 (英) 보혈로 날 씻으사 (中:228)

1 피로 날 정결케 해 죄과를 다 씻고
 주 거룩한 그 관유 내게 바르소서
 생활의 모든 실패 약함 자백하고
 주 영으로 충만해 주 위해 살겠네

(후렴)

주님 날 자아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2 메마른 내 맘 항상 약하여 탄식해
 성령의 충만 받길 진정 사모하네
 주여 날 상처받은 반석에 감추어
 생수를 갈망하는 간구 들으소서

3 내 마음 냉담하고 순종함 느리니
 다시 주 거역 않게 성령 부으소서
 오늘 나 제단 위에 자신을 드리니
 하늘의 불 내리어 다 태워 주소서

4 내 속을 십자가로 더 깊이 태워서
 날 재가 되게 하여 넓혀 주옵소서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생수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3:8-14;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60-61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Living to the Lord and Giving Our Own Account at the Judgment Seat

Scripture: 로마서 14:6-23

Assigned Reading: *Conclu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Believers*, vol. 2, msgs. 151, 184; *CWWL*, 1972, vol. 1, "Preparing for the Lord's Return," ch. 7

Supplemental Reading: *Conclusion of the New Testament: The Church, the Kingdom, and the New Jerusalem*, msg. 222

Hymn: 1159

churchinnyc.org/bible-study